

# 전북의 선비, 이정직의 이야기 속으로

국립전주박물관 시민갤러리서 이정직 특별전 개최... 서화첩·석정임동향광첩 등 50여점 전시

격동의 시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을 살았던 전북 지역의 선비,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穧(1841~1910)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그는 4살 때 천자문 수십 자를 하루 만에 익혔고, 5살 때 엽전을 종이에 똑같이 옮겨 그려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9살에 '통감通鑑'을 모두 읽었으며, 어려서부터 남달랐던 재능을 타고났다.

천문, 지리, 의학, 수학, 서화 등 두루두루 통달한 유학자, '통유通儒'라 부를 수 있는 조선시대 선비는 많지 않다.

이번 전시는 이정직에 대해 통유로서의 면모를 조명한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전북을 대표하는 융합형 인재, 이정직이 전통을 계승하면서 무엇을 고민했고, 지향하며 살았는지 살펴보면, 그의 예술 활동을 통해 과거의 이정직과 소통하고자 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프롤로그에서는 이정직이 다방면에 능통했던 통유로서의 면모를 먼저 소개한다. 화첩은 이정직에 대해 "모르는 바 없고, 통달하지 못한 바가 없는, 향후 몇 백 년 동안 없을 인재"라고 했다.

풍수, 천문, 의학, 음악 등 문장과 서화 외에도 능통했던 그의 인재상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선보인다.

1부에서는 조선에서 근대로 전통을 배우고 끊임없이 수련해 후학들에게 전했던, 법첩 연구의 대가로서의 이정직을 조명한다. 글씨뿐 아니라 그림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수련 과정을 거쳤다. 추사秋史 김정희 金正喜(1786~1856)를 배워 썼던 '원당재현첩院堂再現帖'에서부터 원원齋 張承業

(1843~1897) 그림을 보고 배운 '원원齋現첩 院再現帖' 등 유명 서화가의 작품을 통해 배우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갔다. 또, 중국 서예의 맥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단순히 모양을 베껴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 및 조선 명필가의 글씨를 수없이 입서臨書하면서 골자를 터득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정직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 대가들의 필적을 보는 또 다른 재미와 함께, 끊임없이 서체, 화풍 연구에 매진했던 이정직의 수련 과정을 볼 수 있다.

2부에서는 조선의 '마지막 시서화삼절'로서 일구어간 회화 작품을 살펴본다. 사군子四君子와 괴석怪石 등 그가 주력했던 회화의 소재를 통해 필력과 상징성을 추구한 깊은 내공을 지닌 문인화 세계를 보게 된다.

이정직은 실제 매화보다 매화 그림이 훨씬 좋다고 한 바 있다. 붓끝으로 재탄생한 매화를 통해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지조와 절개, 선비 정신 바로 그것이다.

3부에서는 이정직을 계승한 후학後學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송기범宋基堧(1882~1956), 조주승趙周昇(1854~1935) 등의 활동은 전북 사회계를 풍요롭게 했으며 이 지역이 19세기 후반 이후 전북은 근현대 서화書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전북은 언제나 예림齋齋이라고 불렸으며 그 만큼 예술 문화가 발전했다. 바로 그 시작점에 이정직이 있었다. 근대 서화에서 이정직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이정직이 호남 서단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고,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인사들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전국적으로



성장했다. 또한 전통과 근대 사이의 변화 접점의 한가운데, 선비 이정직이 있었다. 이정직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수많은 인재들은 김제로 모였다. 스승의 모습 그대로 학문과 예술에 매진한 인재들은 전북에서 근대를 열었다. 이러한 문예 활동 양상을 선보이고자 한다.

한편,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과 연계해 두 차례의 연계 강연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http://jonj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청소년들의 음악대축제 광파르

전북도, 세계잼버리 성공기원 청소년음악회 개최

전북도가 오는 28일 전북도청 대공연장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2023 새만금잼버리)의 성공개회를 기원하는 '제2회 전북도 청소년음악회'를 연다.

전북도는 세계잼버리가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만큼 이번 음악회를 도내 청소년들과 관객들에게 세계잼버리를 널리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마음껏 꿈꾸고, 힘껏 비상하라'라는 2023 비전과 함께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세계잼버리의 주인공인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도내 청소년 음악 대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회에는 밴드, 댄스, 보컬 3개 분야에 82개팀 300여명의 도내 청소년들이 예선에 참여했으며, 30개팀 200여명의 청소년이 본선에 진출해 28일 열린 경연을 펼치게 된다.

도는 음악회와 함께 부대공연으로 전북 팝스오케스트라, 아이돌 그룹 다이나의 축하공연과 전북 출신 청소년 댄스팀 LDA의 잼버리 퍼포먼스, 잼버리 퀴즈이벤트,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가자들과 관객들에게 남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잼버리 홍보관은 잼버리 버스킹 공연, Let's go 잼버리 다트게임, 셀카 즉석인화, 브로슈어·기념품 배부 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이벤트를 통해 음악회를 찾는 도민들에게 2023 새만금잼버리를 각인시



킬 계획이다.

이민숙 도 잼버리추진단장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과 도민들에게 잼버리를 알리고자 한다"면서 "2020년부터는 도내 음악회가 아닌 대한민국 청소년 뮤지컬페스티벌로 확대하여 2023 새만금잼버리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에 치러진 제1회 청소년음악회에는 밴드, 댄스, 보컬 3개 분야에 56개팀 3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할 바 있다. /김진성 기자

## 완판본의 고장 전주의 출판·인쇄 기록물을 찾습니다

전주시, 기록물 수집공모전 개최... 1980년 이전 전주 관련 근현대 자료 수집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역사의 도시이자 완판본을 찍어낸 출판의 도시인 전주시가 지역 출판문화의 역사가 담긴 기록물과 인쇄물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전주의 역사가 담긴 출판·인쇄물을 찾습니다'를 주제로 '제7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대상 기록물은 1980년 이전 전주에서 생산하고 유통된 출판물과 인쇄물 관련 자료 등이다. 또,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전주 관련 근현대 자료도 함께 수집한다.

수집하는 기록물의 형태는 사진과 동영상 등의 시정각류, 서적과 인쇄물, 홍보물 등의

문서류, 수집 주제와 부합하는 박물관 등 다양한 유형이 해당한다.

특히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과거 전주 책방거리(서계서포, 다가서포, 양책방 등)에서 발간한 서적류 △지금은 사라졌거나 오래된 인쇄소(가림출판사, 보광출판사, 대양당 인쇄소 등) △전주를 뿌리로 하는 신문, 잡지, 향토지, 기관지의 '창간호' 및 일괄자료 △책과 관련된 전주 배경 사진 △전주의 역사를 정리한 다양한 기록 자료(책자, 도록, 사진첩 등) 등 출판 부문 기록물을 수집할 계획이다.

시는 응모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단 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상 1명(출판인쇄 부문, 전주 부문)을 포함한 입상자 32명을 선정, 오는 11월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접수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http://www.jonju.go.kr))에

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phm0607@korea.kr](mailto:phm0607@korea.kr))로 접수하거나, 전주시 총무과 전주정신의 숲 추진단(063-281-2268)으로 해당 기록물과 함께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주 관련 각종 기록물을 수집·발굴해 소중한 기록 자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전주 기록물 아카이브를 추진해왔으며, 총 6회의 수집공모전을 통해 3060점의 시민기록물을 모으고 관리해왔다.

시는 향후에도 시민의 기억이 도시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기록물 수집 주제를 선정해 연차적으로 기록물을 수집해나갈 방침이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시민기록물 수집의 중요성은 시민의 기억이 곧 도시의 역사로 확장된다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전주 정신이 담긴 기록물의 수집, 관리, 활용을 통해 지난 시간의 흔적을 유형의 자산으로 남겨 전주민의 고유한 기록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한국여자바둑리그 부안곰소소금팀, 창단 첫 챔피언결정전 우승

부안을 홍보하는 부안연고 바둑팀 '곰소소금팀'이 2019 월드캡 한국여자 바둑리그에서 팀 창단 5년 만에 첫 정규리그 및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달성했다.

최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2018 월드캡 한국여자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부안곰소소금팀은 서귀포 칠십리팀을 2대1로 꺾고 종합전적 2승무패로 정상정복에 성공했다.

김효정 3단 감독이 이끄는 곰소소금팀은 오유진 6단 허서현 초단 이유진 2단 후지사와리나 4단으로 구성 되어있다.

김효정 감독은 우승 후 가진 인터뷰에서 "좋은 선수들을 만나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며 "모든 공을 선수들에게 돌리고 싶고 부안군청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우승소감을 전했다.

한편 선수들은 21일 한국바둑의 메카 부안군 줄포생태공원 수담동에서 제18회 조남철국수



배 전국학생바둑대회 개최식에 참석하여 후배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